

# 세계 속으로 뻗어가는 한국의 또 다른 브랜드파워, 재외동포



서유미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협력관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문에 대한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정체성’을 형성해 간다. 건강한 정체성 확립은 높은 자존감으로 이어지고, 이는 아이들이 앞으로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나가는 데 있어 큰 원동력이 된다.

특히 재외동포 자녀들에게 있어 한국인, 나아가 세계시민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실제로 많은 부분이 학교교육 과정에서 생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재외동포 자녀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재외 한국학교 설립·운영을 통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재외한국학교란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현재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 총 15개국에 30개 한국학교가 설립되어 2012년 현재 12,040명이 재학 중이며 학생 수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2008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한국학교에 유치원을 병설·운영할 수 있도록 한 아래 한국학교 유치원생은 2010년 665명에서 2012년 91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재외동포 자녀를 각국의 문화적 토양에서 국제적 소양과 안목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한국학교의 역할에 대한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다.

현재 재외동포 유치원 학령아동은 약 8만 2천여 명으로 추정되나, 이 중 한국학교 유치원 진학 아동은 910명으로 1.1%에 불과한 것이 현 실정이다. 70% 수준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하여 우수교원 확보 및 교육여건 개선이 어렵고 소재지 여건을 고려한 특성화된 교육과정 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교육경쟁력이 낮다는 데 그 요인이 있다. G20정상회의, APEC

교육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 한류열풍 등을 통하여 한국의 높은 위상을 실감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 이외에 소프트웨어적인 파워는 아직 취약한 실정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외한국학교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경영에 효율성을 불어넣기 위하여 학교장 성과평가를 강화하였으며 한국학교 소재국의 특수성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 자격을 완화하여 현지 전문가를 선발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통하여 리더십·언어 구사력 등 학교 경영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우수인력 선발 경로가 다양화되고 학교장이 소신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그리고 현직 교원 역량 개발을 위하여 국내 연수기관과의 MOU를 통한 온라인 연수프로그램도 활성화될 것이며,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국내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소재국의 특성에 맞는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한국학교의 국제적인 교육경쟁력도 높이게 될 것이다.

한편 특성화된 맞춤형 교재의 부족을 해결하고 교과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외한국학교 교수·학습자료 개발」사업 역시 출발점에 서 있다. 일반 교과목 내용을 영어 또는 해당 소재국 언어로 가르치는 ‘이머전(Immersion)교육’ 교재 개발을 통하여 외국어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이와 동시에 ‘현지 사회·문화교육’ 분야의 교재 개발을 통하여 동포가정 학생의 소재국 적응은 물론, 창의체험활동 시간이나 방과후 교재로 활용하게 하여 효율적이고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또한 교사에게는 교과연구회 지원금을 제공하여 담당 교과의 교수법 및 교재에 대한 연구를 유도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한국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인건비, 운영비 및 시설비 등의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국제 명품 한국 학교’ 육성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에 예산지원을 집중할 것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한국적인 특수성이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인데, 우리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우수한 교원, 쾌적한 교육환경, 양질의 교육과정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며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될 때, 세계 속에서 뒤쳐지지 않을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높은 교육경쟁력을 앞세운 ‘국제 명품 한국학교’ 가 가까운 시일 내에 탄생할 것이라 확신한다. 그러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내에만 몰두하였던 우리의 관심을 해외에도 돌려 약 727만 재외동포 자녀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세계 시민이라는 건강한 정체성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육아정책 최고의 Think-tank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양질의 유아교육·보육을 선도해 온 것처럼, 앞으로는 국내 영유아뿐만 아니라 재외동포 자녀들의 유아교육에까지 눈을 돌려 관심과 지속적인 연구에 매진하도록 당부 드리고자 한다. 우리의 소중한 해외 자산이자 인적자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민족의 자긍심 고취를 통하여 미래의 무궁한 부(富)와 희망을 창출하는 건실한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